

Japan Weekly Digest

2010. 10. 25 ~ 10. 29

□ 금주의 이슈

- 日·印 정상회담, FTA(EPA)에 최종합의
- 환태평양지역협정(TPP) 연구회, 총리주재로 개최
- 강제병합 100년, 한일 공동연구보고서 발표

□ 일본 정재계 소식

- 상반기 무역흑자 83%증가, 對아시아흑자 과거최대
- 세계경영자회의, 기술유출 우려 표명
- 법인세감세 재원으로 나프타 면세 축소검토

□ 경제산업성 및 기업 동향

- 경산성, 법인세감세효과 실증분석 발표
- 행정쇄신회의, 경산성 무역재보험 특별회계 폐지
- 동경대, 희토류 재활용기술 개발
- 도시바, “환율70엔 경영체제 구축 프로젝트” 발표

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- 일본, 센카쿠 분쟁을 계기로 희토류 확보에 고심(KIEP)



협회 한일경제협회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(Tel.02-3014-9888)

□ 금주의 이슈

- 日·印 정상회담. FTA(EPA)에 최종합의
 - 간 총리는 25일, 인도 신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 「전략적 글로벌·파트너십」을 향후 10년간 강화하는 공동성명에 서명하고, FTA체결 합의
 - FTA발효는 2011년 (일본수출 90%, 인도수출 97%의 물품 관세가 10년 내에 철폐)
 - 각료급 경제회담 신설과 양국 간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비자발급 간소화에 합의
 - 또한, 중국이 수출 규제하는 희토류에 관해서 일·인도 양국이 대체자원의 공동 연구개발 등 협력강화에 합의

- 환태평양지역협정(TPP) 연구회, 총리주재로 개최
 - 간 총리는 24일, 소각료를 총리관저로 초대하여, 환태평양파트너십협정(TPP)에 관한 학습회의를 개최했음
 - 관세철폐가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하고, TPP교섭 참가여부에 대해 집중 논의
 - 간 총리는 “10년 후를 생각해서, 농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국가의 개방문제를 양립해야 한다”고 강조
 - * 日농수산성은 TPP로 인해 GDP가 7조9천억 엔 감소한다고 반대 표명
 - 센고쿠 관병장관도 「농업개혁을 진척시키면서, 국가를 개방하는 기개를 가져야 한다」라고 언급
 - 이와 관련, 당초 적극적 추진과였던 오하타경산상은 국내 농업문제와 미국의 개방요구 등을 배경으로 신중한 입장으로 전환

- 강제병합 100년,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보고서 발표
 - 한·일 두 나라 학자들은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한·일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공동연구 보고서를 발표함
 - 보고서는 먼저 한·일 강제병합이 무력으로 이뤄진 것임을 분명히 했음
 - 미래비전으로 정부와 민간의 여러 단위를 망라한 '한일 공생을 위한 복합네트워크 구축'을 제시하고 미국, 중국과의 관계 발전에서의 협력을 강조
 - 또한, FTA 조기체결에 의해 경쟁과 협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. 한일해저터널 구상 추진도 요청

□ 일본 정재계 소식

- 상반기 무역흑자 83%증가, 對아시아흑자 과거최대
 - 25일 재무성의 무역수지 발표에 따르면, 2010년도 상반기 (4~9월) 무역흑자가 3조4152억 엔으로 전년 동기대비 83% 증가
 - 일본의 對아시아 무역흑자는 40.6% 증가한 5조2267억 엔으로, **1979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음**
 - 자동차, 철강 수출이 호조를 보였고, 중국에서 적자를 낸 반면, 한국이나 대만 등에서 전자부품 등의 수출이 확대됨
 - 동시에 발표한 9월의 무역흑자는 전년 동월대비 54.0% 증가한 7970억 엔이었음. 수출은 14.4% 증가한 5조8429억엔, 수입은 9.9% 증가한 5조459억엔

- 세계경영자회의, 기술유출 우려 표명
 - 일본경제신문사와 스위스 IMD가 공동주최하는 제12회 세계경영자회의에서 美반도체메이커, 썬디스크의 에리·힐러리 회장은 ‘일본은 최첨단 모노즈쿠리 기술과 생산기반을 국내에 묶어둘 필요가 있다’고 강조하면서 ‘한번 유출된 기술을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’이라고 언급
 - 또한, 공장의 해외이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최근의 엔고현상에 대해 ‘일본에게 불리한 반면, 한국의 원은 과소평가되고 있다’고 발언

- 법인세감세 재원으로 나프타 면세 축소검토
 - 일본정부 세제조사회는 25일, 2011년도 법인세감세의 대체재원으로서, 석유화학제품 원료인 나프타 면세 축소를 포함하는 안을 제시했음
 - 현재, 원료용뿐만 아니라, 제조공정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부분도 면세하고 있어, 세제조사회에서는 연료부분의 과세화도 검토
 - * 나프타 면세규모는 특정업계를 우대하는 조세특별조치 가운데 최대 규모인 약3조7000억엔
 - 재무성은 법인세를 5%인하했을 경우 세입감소액이 최대 2조5000억 엔으로 추산하고, 경제산업성에 대체재원 확보를 요구했음

□ 경제산업성 및 기업 동향

- 경산성, 법인세감세효과 실증분석 발표
 - 경산성은 감세가 투자 활성화, 아시아에서의 경쟁력강화 등으로 3년 후에 4800억~6400억엔의 세수증가가 기대된다며, 중장기적으로 세수부족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고 설명
 - 재무부는 법인세감세로 1.6조~2.5조엔의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입장. 재무부대신은 “법인세 인하가 경제성장과 공동화를 막는 효과가 정말 있는지,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”고 언급
 - 한편, 경산성과 경단련은 「기업의 해외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」며 “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기업은 확실히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”는 등 강경한 입장
- 행정쇄신회의, 경산성 무역재보험 특별회계, 폐지결정
 - 행정쇄신회의(의장: 간 총리) 제3차 업무분류가 27일 시작된 가운데 총 18개 특별회계의 존폐를 포함한 근본적·총체적 재검토를 실시
 - 경산성의 무역재보험특별회계 폐지를 결정한 쇄신회의는 기능을 경산성에서 관련 독립법인인 일본무역보험(NEXI)로 이관할 것을 지시
 - 경산성측은 원자력발전소 등 인프라 수출이 국가전략으로 매우 중요하며, 이를 위해 정부가 NEXI 업무를 보증할 수 있는 시스템 확보가 선결이라는 입장
- 동경대, 희토류 재활용기술 개발
 - 동경대 오카베 교수는 26일, 전기자동차나 가전품 모터에 사용되는 희토류의 재활용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
 - 모터 자석에 사용되는 **희토류인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슴을 효율적으로 분리시키는 기술**로, 실험에서는 자석에 포함된 희토류의 약 80~90%를 회수
- 도시바, “엔/달러70엔 경영체제구축 프로젝트” 발표
 - 도시바 사사키 사장은 25일, 급속한 엔고 진행으로 1달러가 70엔인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경영체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
 - 지난해 10월부터 '프로젝트 70'이라는 엔고 대비 프로젝트를 준비해왔으며, **해외 조달비중 확대 등 엔고 대응력을 강화시켜 나간다는 계획**

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“일본, 센카쿠 분쟁을 계기로 희토류 확보에 고심”

▷ 일·중 센카쿠 분쟁과 중국의 대일 희토류 금수조치

- 지난 9월7일 센카쿠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중국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간 충돌 사건을 둘러싼 **일·중 분쟁은 중국의 외교적 승리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음**
- 이번 갈등에서 일본이 외교적으로 굴복하게 된 데에는 일·중 마찰의 장기화를 원하지 않는 미국의 의도가 결정적으로 작용
- 분쟁과정에서 중국의 대일 희토류 금수조치와 이에 대한 일본 측 대응이 집중되었음
 - 9월21일 일본이 중국인 선장 석방을 보류하자 중국은 희토류의 대일 수출을 금지
 - 경산성에 따르면 중국은 수출허가증 신청 시 영문신청서 외에 중국어 서류 요구, 통관허가 거부, 화물선적 거부 및 화물검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음

▷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와 일본의 대응

○ 중국 희토류 수출규제 강화 및 영향

- 중국정부가 희토류 수출쿼터를 대폭 축소시킨 것에 대해 일본기업은 재고비축 등으로 아직 제품 생산에는 차질이 없으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
- **•도요타: 부품 리사이클 등 검토, •히타치: 대체 재료로 산화철 검토 등**

○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 강화 배경

- 중국정부의 희토류 수출규제 강화 명분은 자원고갈에 대한 우려, 국내 환경보호, 내수우선에 있음
- 일본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 강화를 산업 전략과 연계하여 해석

▷ 일본정부 및 기업의 희토류 확보전략

○ 일본정부의 희토류 공급 대책

- 日경산성은 지난 2009년 7월 '희귀금속확보전략'을 수립하였고, 조만간 이를 더욱 국제화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
 - 간 총리는 지난 10월 2일 바트볼 몽골 총리와 회담. 희토류 광산개발 협력에 합의
 - 민주당 정권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희토류 대체재 개발 지원을 포함시킨다는 방침
- ⇒ 희토류의 90%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나, 이를 70%이하로 낮추려는 의도

▷ 시사점

- 일·중 희토류 마찰은 자원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줌
 - 中 희토류 수출규제 강화가 지속될 경우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
- *출처: KIEP, 지식경제포커스(2010.10.19)

【금주의 일본 주요 보고서】

- (1) 『경제연계협정의 추진~APEC정상회담을 위한 제언』 경단련, 10월 23일
*출처:<http://www.keidanren.or.jp/japanese/policy/2010/096.html>
- (2) 『중소기업의 국제전개』 상공회의소, 10월 23일
*출처:<http://www.tokyo-cci.or.jp/kaito/teigen/2010/221021-2.pdf>
- (3) 『성장전략으로서의 인재정책』 일본종합연구소, 10월 26일
*출처:http://www.jri.co.jp/MediaLibrary/file/pdf/company/release/2010/101025/jri_101025.pdf
- (4) 『신성장전략을 위한 제언』 노무라종합연구소, 10월 26일
*출처:http://www.nri.co.jp/news/2010/101025_1.html
- (5) 『급속히 확대하는 FTA서비스~한국 사례』 노무라종합연구소, 10월 26일
*출처:http://www.nri.co.jp/opinion/k_insight/2010/pdf/ki20101005.pdf
- (6) 『09년의 실업, 과거 실업과의 비교』 노동정책연구소, 10월 26일
*출처:<http://www.jil.go.jp/institute/zassi/backnumber/2010/05/pdf/004-017.pdf>

【금주의 일정】

일 자	주 요 일 정
10월 25일(월)	○ 日·印, FTA체결 합의 (도쿄) *일-인 경제계대표 회의도 동시 개최 ○ 9월 및 10년도 상반기 무역통계 발표(재무성) ○ 9월 자동차 생산·판매실적 발표
10월 26일(화)	○ 9월 기업물가지수 발표(일본은행)
10월 27일(수)	○ 니시무라 일본은행 부총재 강연 *한국 GDP(7~9월기)속보 발표
10월 28일(목)	○ 9월 상업판매통계 발표(경산성) ○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 개최 ○ 10월 경제·물가정세 전망 발표(일본은행)
10월 29일(금)	○ 9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(총무성) ○ 9월 실업률 발표(총무성) ○ 9월 광공업 생산지수발표(경산성)